

[산업]  
판 치는 뒷광고에  
칼 빼든 네이버  
블로그 검색노출 제한  
06

[라이프]  
비페 영업재개  
HMR·배달 등  
특화매장 재탄생  
L1



# 한방·약초 품은 지리산 끝자락… 산청에 가면 짊어져요

## 메트로 트래블

지리산과 동의보감의 고장 산청은 허준 선생 등 수많은 명의를 배출한 곳이며, 지리산 약초의 효험이 널리 알려진 전통 한방의 본 고장이다. 왕산과 필봉산의 정상이 한 눈에 바라보이는 곳에 한방(韓方)을 테마로 조성된 동의보감촌은 코로나19 일상중 종합힐링·건강 관광지로 관광객으로부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지리산 끝 왕산자락에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氣)를 받을 수 있는 명소가 있다. 바로 경남 산청 동의보감촌 내 한방 기(氣)체험장이다. 건강 및 면역력 증가 등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요즘, 동의보감촌 내 위치한 한방 자연휴양림은 허준순례길, 5헥타르(ha)의 산약초재배지도 즐길 수 있다.

지리산 청정골 산청약초시장에서는 나만의 건강 약초 주 만들기, 곶감양갱만들기 등을 즐길 수 있고, 우리나라 대표 체험 휴양마을인 남사예담촌에서는 족족체험, 한복체험, 약초주머니 만들기 등 즐거움속에서 전통문화까지도 느낄 수 있다.

가을정취가 물씬 풍기는 구절초 여행주간, 경남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한방항노화 체험도 즐기면서 심신의 휴식을 쌓아보면 어떨까.

코로나19를 피해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비대면 베스트 야외여행지’를 보기위해 16일 산청을 찾았다.



산청 남사예담촌.

### 가을 입은 지리산의 힐링로드 ‘대원사 계곡길’

첫 번째는 형형색색의 가을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한 지리산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대원사계곡길이다. 맑은 공기, 싱그러운 숲과 더불어 1급수 수서곤충인 강도래와 날도래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탐방로인 대원사계곡길은 그 자체로 힐링로드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지리산국립공원의 대면 해설 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비구니 참선도량인 대원사는 금강송이라는 소나무숲과 수려한 자태를 간직한 다층석탑이 있으며 울창한 숲속의 청정물길로 사시사철 시시도록 맑은 대원사계곡을 끼고 있다. 최근 데크길이 조성돼 대원사 계곡의 속살을 그대로 볼 수 있다. 가을에는 주위 경치와 어우러진 단풍 또한 빼어난 곳이다.

###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 그대로 간직한 ‘남사예담촌’

사단법인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 제1호 마을로 지정한 전통한옥마을 ‘남사예담촌’은 우리나라 전통고택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예담’은 옛 담장이라는 의미다. 예를 대해 손님을 맞는다는 뜻도 함축하고 있다.

3.2km에 이르는 토석 담장은 국가등록문화재 제281호로 지정돼 있다. 마을 안에는 고택은 물론 국악계 큰 스승으로 손꼽히는 기산 박현봉 선생을 기념하는 기산국악당과 백의종군하는 이순신 장군이 묵어갔다는 산청 이사재(경남문화재자료 328호)가 있다.

### 은빛여새 따라 ‘황매산’ 오르면 은하수 장관 눈앞에

매년 가을이면 은빛 여새가 장관을 이루는 산청 황매산은 최근 오토캠핑장 등으로 구성된 ‘산청 황매산 미리내파크’가 만들어졌다.

미리내파크에서부터 산 중턱까지는 무장이나눔 길이 조성돼 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황매산을 즐길 수 있게 만든 나눔길은 데크길, 흙콘크리트길, 전망데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미리내파크에서 출발하면 정상까지 대부분의 구간에 나무 데크 길이 조성돼 있다. 정상부 가까이는 경사가 가파르지만 바로 아래까지는 완만해 쉽게 산을 오를 수 있다. 가을이면 은빛 휴날리기와 밤하늘은 하수 별들을 보러 최근 인플루언스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 기 체조·한방체험… ‘동의보감촌’ 서 웰니스관광

동의보감촌은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관광지로 왕산과 필봉산 해발 400~700m에 산립을 훼손하지 않은 고령토 폐광지역을 활용해 118만 1000m<sup>2</sup> 규모에 기존 관광시설인 전통한방 휴양관과, 동의본가, 한방자연휴양림과 엑스포 시설이 조화를 이룬 체험·숙박형 종합힐링타운으로, 한의학박물관·한방기체험장·엑스포주제관·한방테마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한방가족 호텔, 식당, 한의원, 약초판매장 등 민간시설이 들어서 있다.

2013년에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 정부에서 기획·주관한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계인의 사랑을 듬뿍받았다. 동의보감촌에는 지리산 대자연 숲속체험과 백두대간의 기운을 테마로 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풍부하여 가족여행이나 힐링 할 수 있는 좋은 곳이다. 최근에는 한방의 정수를 모아 구성한 항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여행자의 발길을 사로잡는 중이다.

기(氣)를 제쳐두고 동의보감촌을 이야기할 수 없겠다. 백두대간의 기가 한곳에 모인다는 필봉산과 왕산을 곁에 둔 동의보감촌에는 기운찬 3개의 돌이 있다. ‘귀감석’, ‘석경’, ‘복석정’이라는 이름의 돌이 그것인데, 3석을 통해 건강, 행운 등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돌 근처에서 수련과 명상을 하거나 기 체조를 하는 등의 항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경복궁을 본떠 지은 동의전에서는 지리산을 감상하며 황토석 수백 개를 엮어 만든 온열 베드에 누워 몸을 데우는 온열 힐링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한방차를 마시고 당귀, 생강, 정향, 박하 등의 한방 재료를 이용해 향기 주머니를 만드는 체험도 가능하다.

### 한방·약초와 한 발 가까워지기 ‘한의학박물관’

산청 한의학박물관은 ‘동의보감관’과 ‘한방 체험관’으로 구성된다. 동의보감관에는 동의보감을 비롯한 170여 점의 의학 관련 유물을 모아 전시하고 있으며, 한방 체험관은 다양한 약초와 한의학 정보를 갈무리한 것을 바탕으로 약초 감별법, 약재 간 궁합, 효능 등을 게임으로 구현해놓았다.

헬자리와 경락 등을 시청각 자료로 만들어 한눈에 알 수 있게 했고, 옛 한약방의 모습을 세트장처럼 재현했다. 약초 테마공원은 수백 가지의 약초가 실물로 펼쳐져 여행자의 호기심을 충족 시킨다.

엑스포 전시관에 가면 어의복과 의녀복을 유료로 대여할 수 있다. 잠시 동안 허준이나 장금이가 되어 바로 옆에서 진행하는 약초 거품 손 마사지 체험도 가능하다. 밀도 있는 거품으로 5분 정도 마사지하면 약초의 효능이 피부로 침투해 고운 손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건강에도 좋다.

허준 순례길은 숲과 약초 정원, 사슴목장, 구름다리 등 다양한 풍경을 따라 걷는 길이다. 특히 가을에는 새하얀 구절초가 만발해 절경을 이룬다.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며 땅 위에 두 발을 단단히 딛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웰니스 관광이다.

한편 앞서 경상남도는 도내 가을철 비대면 여행지 18선을 소개하면서 산청군의 흥단풍이 아름다운 ‘밤머리재 드라이브 코스’를 추천 한 바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청군은 매년 가을이면 매주 말 수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힐링의 고장이다.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는 야외 관광지를 중심으로 찾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대면 베스트 야외 여행지’를 선정했다”며 “산청을 찾아주실 때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 안전한 여행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희 기자 lmh@metroseoul.co.kr

/취재협조=산청군



❶ 지리산 수선사를 찾은 관광객들이 정취를 즐기고 있다.

❷ 산청 황매산 최고봉(1134m) 우측 밤하늘에 은하수가 걸려있다.

❸ 동의보감촌 약초테마공원.

❹ 산청 한의학 박물관에서 여행객들이 한방체험을 하고 있다.

/이민희 기자, 산청군